

회교공동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신문화 기술지 연구*

김 영 숙

(삼육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공동체에 대한 연구로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주제에는 신문화 기술지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에는 10명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 6명의 한국인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과 비참여 관찰기록을 토대로 구성했다. 자료는 Spradley(1979)가 제시한 발전식 연구단계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을 총섭하는 문화적 주제는 「세속의 길에서 종교의 길로」, 「초민족적 종교로의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신문화기술지 연구, 무슬림 이주 노동자, 초민족적 종교로의 재구성, 세속의 길에서 종교의 길

1. 서론

세계화는 물리적 국경의 개념을 희박하게 하고 지리적 상상력을 촉발시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국제이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가 유엔이민자 인구통계를 인용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에서 35명중 1명은 국제 이주자에 해당한다(IOM, 2003).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328-2008-2-B00067).

한국 역시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노동력 송출국가였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경제·문화적 위상을 높였고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 후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규모는 870,636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0). 이주민들 중에는 유학생, 단기체류 여행객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주 노동자들이다. 고용노동부(2010)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규모는 미등록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대략 68만 명으로 추산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한국은 우리의 선택 여부와 호불호를 떠나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국가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그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다문화란 용어가 시대적 화두(話頭)로까지 떠오른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범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설동훈, 1992; 박래영, 1993; 이혜경, 1994)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최돈길, 1995; 박석운, 1995)와 한국사회 적응을 다룬 연구들(유명기, 1997; 함한희, 1997; 설동훈, 1997)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90년대의 이주 노동자 유입이라는 사회 현상을 조망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들로 2000년 이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결혼 이민 여성들을 지렛대로 하여 수행되었는데 결혼이민 여성의 적응문제(홍기혜, 2000; 이현정, 2000; 김민정 외, 2006; 김연수, 2007; 박재규, 2006; 한건수, 2006)와 부부갈등(이금연, 2003; 윤영주, 2001; 김오남, 2006) 및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정은희, 2004; 조영달, 2006; 오성배, 2006)가 있다.

셋째는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옥정(1994)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박윤경, 2002), 필리핀 결혼이민 여성들의 자조모임과 필리핀 이주민들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연구(김민정, 2003; 권중화, 2004)와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연구(한건수, 2005)가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실천적 의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국제이주가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의 층위를 포착하는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것은 문화의 이동과 융화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이동은 문화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 지역 내에 다수의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 문화는 장소에 고정되어 발전한다는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지역의 문화는 주류 문화에 의해서만 생성, 유지, 발전된다는 도식이 도전 받게 된다(Urry, 2000; Crang, Dwyer and Jackson, 2003; 이용균, 2007). 다문화 사회는 몇 개의 소수 문화가 주류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구성 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다른 통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Kymlicka and Banting, 2006).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문화의 접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교문화배경을 가진 이주 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의 문화통합과 차별화의 과정과 가치체계의 선택

적 수용이라는 역동적 과정과 내용을 신문화 기술지(new ethnography)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회교도 이주 노동자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상정한 것은 회교문화의 이질적이면서도 확연한 대조성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와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출신들이다. 이들은 아시아 문화권, 유교문화권 이라는 문화벨트에 공속적으로 연대되어 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기독교(가톨릭) 문화권이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문화 역시 익숙하다. 이에 비해 회교 문화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낯설음은 경외와 혐오의 양가감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효과를 확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역사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들어와 잠시 스쳐갔던 회교문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만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려고 한다. 다문화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교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공존과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접변 이론과 회교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서로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은 상호적응이라는 과정을 안고 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acculturation』이란 용어를 문화적응, 문화변이, 문화접변, 문화변용 등으로 번역하여 일방적인 적응이 아닌 상호변화를 생성하는 창발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¹⁾ 초기의 주된 패러다임은 동화주의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화동화주의자 Yinger와 Gordon은 문화적응을 주류문화 또는 상대 문화에로의 동화로 인식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패턴 등을 수용국의 문화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Kulczycki and Lobo, 2002; Sam and Berry, 2006).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연구들은 주류문화에로의 동화를 성공의 잣대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동향은 주류사회의 가치와 특성을 이민자들을 통해 재현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Zizek, 1997; Roccas, Horenezyk and Schwartz, 2000; Castro, 2003).

근래에 이르러 문화동화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문화접변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민자들의 문화 정체성의 보존(Phinney, 1990; Berry, 2002)과 주류문화와의 융합(Taylor, 1987)을 문화접변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Redfield, Linton 그리고 Herskovits(1939)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문화접변은 다양한 문화적 근원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문화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두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고유의 문화적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다(정진경·양계민, 2004. 재인용). 이러한 개념정의를 시사하는 바는 문화접변은 중립적이고 한 집단이나 개인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의하여 일방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접변의 호환적 개념으로 이중문화(biculturalism), 다문화(multiculturalism), 재사회화(re-socialism)등이 생성되었다. 하지만 Berry(1997)는 문화접변의 중립적 개념을 부인한다. 그는 현실세계에 있어 어느 한 집

1) 본 연구에서는 acculturation을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화적응이 아닌 문화접변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의 경우 소수집단은 보다 많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Berry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주류사회문화와의 관계 양상에 따라 문화접변을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통합(integration), 자신의 문화를 폐기하고 새로운 문화만을 수용하는 동화(assimilation),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는 분리(separation),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문화도 거부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분류했다.

Berry의 이론으로 이주민들과 주류사회와의 문화접변을 살펴본다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적 호혜관계라는 소박한 정치적 수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소수자 집단에 중심을 두고 그들이 어떻게 주류문화집단과의 긴장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적 정체성을 변화, 유지, 발달시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교 공동체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정서적 분리와 내부결속이라는 문화적 역설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회교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과정의 고전적인 저작으로 꼽히는 Rose(1969)의 연구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무슬림 이민자들의 종교적 정체성 재형성에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영국으로 이주한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을 연구했는데 이민초기 무슬림 남성들은 종교적 생활을 하지 않았고 많은 면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재결합이 있는 후 내부의 종교적 권위는 부활했고 이들은 친족 간의 결혼을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영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Werbner(2005)역시 영국으로 이주한 파키스탄 무슬림을 연구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새로운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이민지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사회·문화적으로 분리시켜 이민지의 문화가 스며들 수 없는 「캡슐」 과도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내부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정서·도덕적으로 재무장 시켜 영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성장해 나간다.

한국으로 이주한 무슬림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주류문화와의 분리 → 공동체 형성 → 내부분화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산재한 이주 무슬림들의 경우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고수하며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주지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종교적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이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들의 문화에 집착하게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무슬림 이주민들은 서울 이태원의 중앙성원, 인천의 부평성원 및 소규모의 기도방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자신들의 종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내부의 결속을 유지했다.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결집에는 출신국과 언어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안정국, 2008.). 하지만 회교 공동체는 점차 국적, 인종, 언어 등에 따라 분화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회교공동체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을 연구한 안정국(2008)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출신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결혼식 같은 고유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분화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종교적 정체성 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더 중시하여 민족별로 분화한다는 사실은 외국

의 회교공동체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다. Halliday(1992)는 영국에 거주하는 예멘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이슬람은 정치·사회적인 정체성에 불과하며 공동체 내부에서는 민족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회교 공동체 형성과 변용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에서 일어난 루시디 사건²⁾의 경우 무슬림들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은 영국민들의 이슬람혐오주의를 유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으로 무슬림들이 자신들을 파키스탄인이나 영국인이 아닌 무슬림으로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던(정희라, 2009) 것처럼 주류 문화와의 긴 상관계에서 생성되는 무슬림들의 정체성 변화 등을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신문화 기술지 접근

본 연구의 접근방법론인 신문화 기술지(new ethnography)는 전통적인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론에 대조질문, 카드추출, 영역분석, 분류분석과 같은 자료수집 기법을 확충하여 정보제공자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좀더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화 하기위한 방법론이다(유명기, 2002; Morse, 1996).

신문화 기술지는³⁾ 문화는 물질적 현상의 토대를 이루는 인지구조이며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적 체계는 의미론에 반영된다(유명기, 2002)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지체계의 정치(精緻)하면서도 완벽한 기술이다. 신문화 기술지 연구 전통은 지나친 미시적 접근으로 인해 거시적 구조의 맥락을 놓칠 우려가 있고 면접자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행위의 동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과 상징과 의미분석에 치중하여 환원론에 경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2) 루시디 사건이란 1988년 인도출신의 영국 소설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가 그의 작품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에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장사꾼에 비유하고 그의 열두 아내를 창부에 비유하여 이슬람 교도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건이다.

3) 문화기술은 탐구하고자 하는 문화의 층위와 기본관점과 연구설계 및 절차에 따라 총체적 문화기술지, 의사소통 문화기술지, 인지인류학(Jacobs, 1987)으로 분류되고 국내 연구자 박성용(2002)은 심리동학적, 사실적 생애사, 의례중심 문화기술지로 구분했다. 총체적 문화기술지는 인류학의 가장 일반적인 연구 전통으로 문화의 제요소는 하나로서의 전체문화에 연관되어 있고 문화는 인간의 삶에 순기능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 전통은 반복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일반화에 근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과 해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세계관과 학제, 자질 등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다(조명옥, 2003).

의사소통 문화기술지는 인간의 의사소통은 문화적 층위에서 구조화되고 인간사회의 구조와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가정하고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때문에 문화를 구성하는 제 요소들을 다루기보다는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 전통은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 사회조직, 가치와 신념, 역할관계와 같은 비가시적 문화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소통이라는 단편적인 행위가 전체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 발현에 대한 정보가 배제되는 단점이 있다(Klienman, 1980; Gordon et al., 2001).

(Tripper-Reimer and Cohen, 1990)되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할 수 있고 정보제공자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용숙·김영천, 2002)이 있어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응용학문에 널리 수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동방법론의 인식론적 취약성, 즉 동태적 측면에 대한 소홀과 환원론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관찰이라는 전통적인 자료수집 방법을 추가하여 신문화 기술지의 약점을 상쇄하고자 한다.

2) 연구현장

통상적으로 무슬림 공동체는 모스크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자신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겨 나가며 그들만의 커뮤니티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한다(안정국,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서울 이태원의 중앙성원, 인천의 부평성원 및 기도방 등은 적합지 않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무슬림 문화와 다른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 그리고 우리문화가 접변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현장은 경기도 M읍의 가구공단이다. 이곳은 중소가구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노동자 대다수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부 아시아계 무슬림을 비롯하여 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지구촌 각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문화배경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경영자와 상인, 종교인, 이주 노동운동가들이 혼재해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부터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형성을 원조하여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Gates(1993)가 정의하였듯이 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집단의 불변적 속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의 맥락속에 위치 지어지며 충돌과 절충, 자기해체와 자기의 재형성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물리적 현장은 문화접변을 살펴보는 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3) 정보제공자

본 연구의 주요 정보제공자는 남아시아출신 무슬림 이주노동자 10인이었다. 그 밖의 보조정보제공자로는 한국인 6인(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 1인, 주변상인2인, 경영자 3인)이었다.

주요정보제공자는 세평적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방법을 통해 선정했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먼저 선정기준을 만들었다. 선정기준은 첫째, 한국체류 3년 이상일 것, 둘째, 공동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였을 것, 셋째,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정보제공자들을 이주노동자 지원운동가2인, 종교인 3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4) 자료수집

자료는 비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다.

(1) 비참여관찰

연구팀의 박사과정 수료 연구보조원이 6개월동안 연구현장을 정기적(주2회)으로 방문하여 연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지인화된 이방인”이 되어야만(spradley, 1979) 하는데 이는 연구현장에 밀착해 있고 내부자적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이 원칙을 고수했다.

참여관찰기간은 2009년 1월부터 동년 7월까지였다. 하지만 자료의 분석과 정리시에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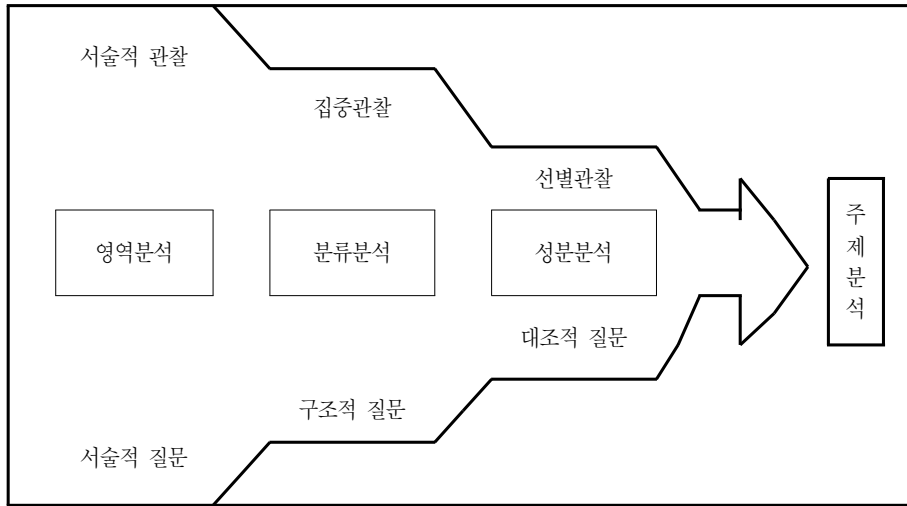
(2) 심층면담

정보제공자들과는 심층면담을 했다. 이 심층면담은 정보제공자 1인당 약 10회, 1회당 약 60~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정보제공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여 원자료(raw data)를 만들었다. 정보제공자들 이외에도 한국인 경영주, 회교 문화배경 이외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면담 기록을 만들고 이를 분석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5) 자료분석틀

자료는 문화기술지 분석의 대표적 분석틀로 인정받고 있는 Spradley(1979)의 발전식 연구단계(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D,R,S)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Spradley의 자료 분석 단계는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주제 분석의 4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분석 단계마다 특유한 자료수집 방법이 조응되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Spradley(1979)의 발전식 연구단계

위와 같은 분석틀에 근거하여 첫째, 영역분석 단계에서는 10명의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서술적 질문, 서술적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문화적 영역을 발견하고 영역별 총괄용어 카드를 작성했다. 둘째, 분류분석 단계에서는 구조적 질문과 집중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총괄용어 카드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카드를 분류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하위분류들 간의 내부관계와 분류와 전체 영역간의 관계를 조직화 했다. 셋째, 성분분석 단계에서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를 충전한 후 문화적 상징과 관련된 성분을 찾고 이를 분류한 후 하나의 표에 모든 정보를 기입했다. 넷째, 주제 분석에서는 수많은 영역들에서 반복되는 원칙과 하위체계들과의 관계를 발견하여 이를 기술했다.

4.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주요 정보제공자 10명과 보조정보제공자 15인, 도합 25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정보제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출신국	나이	성별	혼인관계	직업	월수입	종교
주요정보제공자1	방글라데시	38	남	기혼	공원	12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2	파키스탄	42	남	기혼	자영업	18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3	파키스탄	29	남	기혼	공원	9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4	파키스탄	38	남	미혼	공원	11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5	방글라데시	32	남	기혼	건설노동자	5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6	인도	35	남	기혼	공원	8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7	인도	40	남	기혼	농장역부	12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8	파키스탄	35	남	기혼	건설노동자	17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9	방글라데시	27	남	미혼	공원	100	무슬림
주요정보제공자10	방글라데시	24	남	미혼	공원	110	무슬림

〈표 2〉 한국인 보조 정보제공자

구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혼인관계	월수입	종교
보조정보제공자1	49	여	고졸	상업	기혼	250	기독교
보조정보제공자2	52	남	고졸	상업	기혼	200	가톨릭
보조정보제공자3	44	남	대졸	회사대표	기혼	500	기독교
보조정보제공자4	58	남	고졸	회사대표	기혼	400	불교
보조정보제공자5	47	남	대졸	회사대표	기혼	500	무교
보조정보제공자6	32	남	대졸	인권운동가	기혼	70	불교

2) 자료분석

(1) 영역분석

서술적 관찰과 서술적 면담을 통해 구성된 원자료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총 42개의 총괄용어를 구성했다. 이 총괄용어를 연구내용인 무슬림공동체의 정체성, 타 이주 노동자들과의 관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 지역사회의 변화로 영역을 나누어 총괄용어표를 작성했다.

〈표 3〉 영역별 총괄용어 목록

타 이주노동자	무슬림 공동체	한국지역사회
국적을 떠난 협력	코란독회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체
정보망 상호 구축	이지없는 상호대부	압제하기와 편승하기의 줄타기
단속시 상부상조함	술자리 동석의 거부	상대적 우월감으로 무장
연대하여 잔업을 거부	테러지원국이라는 낙인에 저항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음
공동체에 가입함	종파를 떠난 연대	경영자와의 제휴
자조모임을 만들	소모임을 개최함	외국인 혐오주의의 전파
모국과 연결고리	기독교 전도의 거부	지역의 희생양 찾기
지도자를 뽑음	종교적 색채의 지원거부	혈연과 지연의 재연결
한국인에게 당당히 맞섬	이슬람 평화주의의 전파	약자에게 한풀이
내국 운동가들의 지원	무슬림 풍속의 고수	내편 만들기
사회적 지지의 외연확대	금기시된 음식의 거부	닭은꼬 찾기
사고 보상의 집단 요구		당근으로 달래기
상대방문화에 대한 존중		종교적 광신자로 몰기
편가르기에서 벗어남		결속하여 대항하기
친구맺기		경영자를 대리한 억압
이주민 자원센터에서의 회합		

(2) 분류분석

분류분석에서는 영역분석에서 도출된 총괄용어에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간의 상호작용과 내국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조적 질문과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관찰을 수행했다. 분류분석에서는 「배제와 차별의 대결구도」, 「무슬림이주노동자 간의 문화적 갈등과 해소」, 「의명으로 만나기」, 「우상만들기」, 「정통성 논쟁의 종식」, 「동화의 거부」, 「동류의식으로 엮히기」, 「그림자 벗기」, 「낮은곳에서의 화음」, 「여분의존재에서 중심존재로의 이동」과 같은 10개의 상징어를 구성했고 성분분석에서는 선별관찰과 대조적 질문을 통해 2개의 문화적 상징을 찾았다.

(3) 성분분석과 기술

① 낮은 땅에서 주변부로 내몰리기

정보제공자들은 인종, 국적, 출신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했다고 구술했다. 정보제공자들이 만난 한국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OECD국가군에 진입한 한국이라는 상징적 권력을 등에 업고 이주노동자들을 다루기 쉬운 존재로 여겼다고 한다.

정보제공자들 중에는 출신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학교교사,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활동했던 전문 인력이 다수 있었으나 한국에서 그들은 「이주노동자」, 또는 「불법체류자」 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인권이니 하는데 진짜 현장에 와봐요. 재네들이 얼마나 복장터지게 하는지... 한국이 이정도 살게 된게 다 누구 덕인데, 우리들 세대는요, 짬뽕먹어가면서 월급 오천원 받고 근대 생활했어요, 미군처럼 월급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겠어요. 망치루 머리통 맞아가면서 일 배웠어요, 우리한테

비하면 외국애들은 신사대우 하는 거야요”(보조 정보제공자 4)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차별차별 하는데 솔직히 차별없는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이나 중동에서 차별 안받았겠어요(이하 중략). 재네들이 여기서 돈을 쓰기를 해오 뭘해요. 막말로 김정일이가 밀고 내려오면 재네가 총들고 싸울까요. 죽으나 사나 한국사람이 이 땅을 지킬 것 아니에요. 우리도 재네가 필요하고 재네들도 우리가 필요 하니까 그런거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에요 가면 그만인 애들인데 있는 동안 최대한 활용하려는게 인지 상정 아닌가요”(보조 정보제공자 5)

위와 같은 내국인 보조 정보제공자들의 구술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관점과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연구 현장인 K도 M읍의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주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슬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중의 차별구조에 위치지어져 있었다. M읍 가구공단의 경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지닌 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유교, 불교, 가톨릭 문화권 출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독특한 복식과 음식문화, 그리고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의례(ritual)등은 구별짓기의 매개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방글라데시 사람들 이해 할 수 없어요. 수염도 안깎아요. 포크미트 안먹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필리핀에도 무슬림 있어... 필리핀 무슬림들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살지도 않아요”(필리핀 출신의 이주노동자)

“중국에 있는 알라신 사람들 적어요. 그래서 별로 만나지 못해요. 한국 알라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상해요. 알라 사람들 너무 난폭해요. 중국도 알라신 사람들 속상해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구술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종교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복장과 음식문화, 생활관습은 내국인은 물론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낯선 것이었다.

낯설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신비와 경이로움, 때로는 공포를 야기 할 수도 있다. 무슬림들의 낯설은 문화는 신비와 경이로움 보다는 「배제」의 원인을 제공 했다고 사료된다.

“하고 다니는 것이 다르니까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좀 독특할까 못해 너무 튀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못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거 뭐랄까 어쨌든 이상하니까 거리를 두고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외국애들 중에도 몽고와 월남애들 또 중국애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애들은 좀 그래요 . 생긴 것도 코도 크고 머리도 다르고”(보조 정보제공자 1)

무슬림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는 M읍 지역사회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H산업의 경우 내국인 공장

장과 목공 기술자 2명을 제외하고는 13명의 종업원이 모두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의 국적은 다양했다. 필리핀인 3명, 베트남 2명, 네팔인 1명, 몽골인 2명 그리고 남아시아출신 3인 등이었다. 이중 서남아시아 출신 무슬림은 2인이었다. 공장주의 구술에 의하면 출신국이 다른 노동자들은 서로 반목을 하다가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뽄뽄뽄 쳐 모든 것을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무슬림 이주노동자 2인을 둘러싸고 성토를 하고 있었다.

전날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의 MP3와 시계가 없어졌는데 이주노동자는 이를 무슬림 노동자들의 소행이라고 믿고 없어진 물건을 내어 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물론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소행이라고 추측할 만한 상황증거도 없었다. 단지 이들은 “내놔”, “찾아봐”라는 말을 반복하며 협박하고 있었다.

공단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무슬림이주노동자들이 월세방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2인은 공장 기숙사 생활, 특히 음식이 불편하여 거주할 방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선뜻 방을 내어주는 집주인이 없어 힘들다고 했다. 공단주변의 주택에는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었다. 특히 내국인들이 싫어하는 지하, 반지하방은 이주노동자들 차지였다. 무슬림이주노동자들은 지하방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임대를 거절했다고 한다. 거리에서 만난 무슬림 이주노동자2인의 구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출신인 M과 H는 한국에 온지 6년이 넘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썼으나 돈만 소비했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한국에 처음 온 후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가구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공장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제일 힘들었다고 구술했다. 무슬림 율법상 돼지고기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는 음식이 돼지고기 요리였다. 공장에서 주방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공장주의 친척인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무례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무슬림과 탈레반과 오사마 빈라덴을 동일시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하고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돼지고기 요기를 자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장주에게 항의를 해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공장주는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공단 주변의 한국인 집주인들은 베트남이나 몽골, 필리핀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무슬림들에게는 여간해서는 방을 임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중 사탄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피랍되고 K모씨가 살해를 당했을 때,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했다고 한다. 3년째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 난 사람도 있었고, 사장이 기독교인인 공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을 박대했다고 한다. (무슬림이주노동자들의 구술을 연구자가 요약정리)

연구현장에서 만난 내국인 12명과 무슬림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한 이주노동자 16명을 상대로 “무슬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휘나 상징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내국인들중 4명은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코란」이라는 상징어를 떠올렸고, 그 다음이 탈레반, 오사마 빈라덴, 알라, 초생달, 사막 그리고 모스크였다. 이에 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코란,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알라, 9.11테러,

오사마 빈라덴, 히잡이나 차도르등을 떠올렸다. 간략한 면접조사 결과와 같이 내국인이나 이주노동자들은 「아라비안나이트」나 「아라비아 숫자」 등과 같은 무슬림의 화려한 문명을 상징하는 어휘는 떠올리지 못했다. 히잡과 차도르로 상징되는 억압과 탈레반과 오사마 빈라덴으로 상징되는 테러와 폭력만으로 무슬림을 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무슬림 전통을 포기하고 투항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배제의 대상으로 살아가든지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이중차별과 배제 못지않게 경험한 것이 동화의 압력이다. 특히 내국인들 중 근본주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이주노동자에게 끊임없이 개종을 권유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집중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회교국가 출신들은 정도가 심했죠. 그분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인권과 같은 데에는 관심이 덜했어요.(이하 중략) 어떤 목사님은 구태여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선교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하중략) 선교하는 거 누구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열심을 넘어 어떤 때는 전투적이예요. 전투적 메시아이즘이라고 할까요(이하 중략)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기독교인들이 호의를 베풀어도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들은 의심을 해요. 좀 친해진다 싶으면 교회나오라고 하니까요.” (보조정보제공자 6)

“방글라데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려고 해도 계좌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누가 교회에 가면 도와준다고 해서 교회에 나갔어요. 열렬한 환영도 받았어요. 목사님에게 나 대신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승낙하셨어요. 일요일날마다 식사대접을 받고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분들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3개월 정도 지난 후 세례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세례를 안받겠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공장으로 많이 찾아 왔어요.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안간다고 해요. 나는 알라신을 믿으니까 알라가 나를 보호해 주어요.”(영어와 서툰 한국어로 한 정보제공자 7의 구술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요약)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현장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한국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땅이 라기보다는 낯설은 익명의 대지였다. 그리고 이 익명의 땅에서 그들은 사탄의 제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지어졌다.

② 동맹으로 대응하기

연구현장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삭막하고 험난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인우(隣友)동맹을 결성했다. 서울H동 무슬림 사원과 K도에 소재하는 기도처가 이들의 결집처였다. 사원과 기도처는 종교적인 공간만은 아니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정보교환은 물론 서로에게 피신처로 제공하기도 했고 산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연대하여 저항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애 하나가 기계에 손이 찍혀서 좀 다쳤죠. 개는 합법적인 연수생이라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하 중략)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니까 개인 합의하고 무마하려고 했는

데(이하 중략) , 처음에는 고분하게 말을 듣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뻗대더라구... (이하 중략) 사무실로 흰옷을 입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 들었어요, 우리 공장애들은 아니죠, 생판 보지 못한 애들이 떼거리고 항의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하 중략)” 산재처리 해줬어요. (보조정보제공자 5)

“여기 외국애들 자기들끼리 잘 뭉쳐요. 예전에는 따로 놀았는데 출신국끼리 뭉쳐가지고 이젠 옛날 처럼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공장은 외국애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 공장이 스톱된 적도 있어요. (이하 중략)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애들이 특히 잘 뭉쳐요. 필리핀 애들도 그렇구요. 도대체 개네들은 구별하기가 힘들어 갖게 헛갈려요. 옷도 똑같고 수염 기르고 다니니까 진짜 누가 누군지 몰라요. (보조정보제공자 2)

살아남기 위한 약자들의 연대는 자연스러운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으로 시작된 한국의 이민역사 역시 같은 종교를 구심점으로 한 연대와 「계」와 같은 경제적 연대가 이민자들의 뿌리내리기에 기여했듯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연대를 하여 한국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바꾸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대 형성은 필리핀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조모임 등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주로 가톨릭교회, 사찰 등에 있는 모국출신 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 여타 이주 노동자들의 공동체활동은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정통성 논쟁의 종식」과 「무슬림 가치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슬림은 다양한 종파가 형성되어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무슬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들은 이슬람 정통파를 자처하는 수니파(suni)이다. 반면 남인도출신과 소수의 중동출신 무슬림은 시아파(shia)이다. 이들은 비록 무슬림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돔(dome)속에 있지만 정통성 논쟁에는 양보가 없다. 이란, 이라크 전쟁 역시 정통성 시비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 이들은 출신국과 종파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팽배한 무슬림 혐오는 이들을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들은 출신국별로 모였어요. 고향애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종파가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나 불교도 보다 시아파 무슬림을 더 싫어 했으니깐요. 하지만 한국 곳곳에서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합칠 수밖에 없지요. 사장 아들 조그만 녀석이 내 수염을 잡고 장난을 쳐요. 수염은 우리 무슬림들의 자존심이자 남자의 권위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깐.” (정보제공자 5의 구술을 재구성 요약)

“종파는 이제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달라지겠지:만 한국에서는 한 무슬림 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정통인지는 당분간 한국에서만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고향에는 부인과 부모님, 아들 셋이 있어요. 편지를 보내 수니파들과 잘 지내고 있

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우리는 영어와 그동안 배운 한국말을 섞어 의사소통을 해요. 같은 무슬림이니 까” (정보제공자 7의 구술을 연구자가 재구성, 요약)

M읍에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옷가게가 있다. 「OOO 아울렛」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걸어 놓았지만 실상은 중고 구제품 옷을 파는 곳이다. 청바지, 등산복 하의 등이 5천원, 점퍼가 1만원, 티셔츠나 와이셔츠류가 3천원에 거래된다. 일요일 오후에 이 가게는 이주노동자들로 북적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짝을 이뤄 이곳을 찾는다. 국적과 일하는 곳을 물었다. 대부분 같은 국적이나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옷뿐만 아니라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낼 옷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가끔 세계적으로 알려진 「N」이나 「P」 같은 브랜드 옷을 발견하면 보물을 찾은 듯 좋아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같이 온 동료들 이외에는 서로 말을 걸지 않는다. 이들은 옷을 구입한 후 대체적으로 곧바로 이동한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여럿이 어울려 찾지 않고 혼자서 찾는 경우가 많다.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배회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무슬림 동료를 발견하면 서로 반가운 인사를 하고 저마다의 모국어로 아니면 그동안 익힌 한국어로 정담을 나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전쟁을 치른 나라이고 현재 양국간의 관계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에서 인도인과 파키스탄인의 만남은 미국 뉴욕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난 경우와 같을 것이다. 연구자는 관찰을 하면서 파키스탄인과 인도인의 우호적인 만남과 교제를 다수 목격했다.

주요정보제공자의 구술처럼 “한국 사람들 우리 매우 싫어해요. 우리가 필요해서 여기 살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난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방글라데시, 인도 다같은 형제예요.” (주요정보제공자 3의 구술을 연구자가 재구성, 요약)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위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외연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 기보다는 무슬림의 외연을 확대하고 초국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이방인으로 남고자 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주요정보제공자들과의 인터뷰결과 한국은 그들의 종교적 규제와 금기를 깨트리는 땅이었다. 초 단위로 구획되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산현장에서 그들은 기도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의 종교적 금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식단과 음주가 빠질 수 없는 회식문화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종종 무력하게 만들었다.

“사장은 술을 매우 좋아해요. 공장 직원들하고 술 먹는 걸 좋아해요. 나는 늘 술먹으로 가는 것을 회피했어요. 무슬림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되요. 그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뺏기는 것 이야요. 필리핀 사람, 차이나 사람 사랑하고 친해요 술먹고 중국노래, 영어노래 같이 불러요. 나는 사랑하고 필리핀 중국 사람한테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 월급 120만원인데 난 90만원이에요. 일도 내가 더 많이 해요. 공장에서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옮겨야 돼요. 청소도 하고 힘이 들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술도 먹어봤고 돼지고기도 같이 먹었어요. 사장님이 이새끼 내숭 떨었구나 그랬어요. 내숭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말만 기억해요. 월급이 10만원 올랐어요”(주요정보제공자 9)의 구술을 연구자가 재구성, 요약)

“돼지고기, 햄 먹으니까 구역질 날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돼지가 내 뺏속에서 돌아다녔어요. 햄이 맛있어요. 먹으면 안되는 것인데 자주 먹으니까 맛있어요. 먹으면서도 걱정했어요.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하나”(주요정보제공자 4의 구술을 연구자가 재구성, 요약)

정보제공자들은 그들의 전통적 복장을 고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의 음식문화와 술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회식문화를 거부하기는 힘들었다. 삼겹살과 소주에 중독된(주요정보제공자 2)이주 노동자들도 있었다.

주요정보제공자 8의 전언에 의하면 자신의 무슬림 형제들 중에는 동성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여성과의 교제가 쉽지 않고 특히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적 상황과 설사 허용이 되더라도 고가의 성매수 비용 때문에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동성애의 유혹을 받는다.(주요정보제공자 3의 구술요약)고 했다. 무슬림들에게 동성애는 철저한 금기의 대상이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죽여야만 했다. 하지만 세속의 길로 들어선 그들에게 종교적 금기는 지켜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터키 같은 곳은 세속국가이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세속의 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기도 해요. 하지만 회교도 공동체 뭐 그렇다고 타이트한 구조와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그런게 조금씩 생겨나자 이 사람들이 잠시 잊었던 종교적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느껴져요. 그 이유와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보조정보제공자 6)

이주노동자 지원 운동가 K씨의 구술에 의하면 공동체는 그들의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적 주제 발견

문화적 주제 분석은 영역·분류·성분분석의 총괄용어와 상징어를 두루 관통하는 주제를 찾는 것이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원칙과 하위체계간의 관계를 살피고 이를 분류, 결집하여 문화적 주제를 「세속의 길에서 종교의 길로」, 「초민족적 종교로의 재구성」으로 상정했다.

(1) 세속의 길에서 종교의 길로

성분분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잠시 한국인이 되기 위해」,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종교적 금기를 어겼다. 이는 종교 지향적 정향을 강하게 지닌 무슬림들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 순결의 상실이었다. 술과 돼지고기 등의 식음은 악마와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역시 무슬림 전통 복장을 하고 캔 맥주 등을 구입하는 무슬림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들이 세속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규제와 감시가 없는 이국땅의 환경도 영향을 주었지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지평으로 소환하여 끌어들이려는 내국인들의 집요한 동일성의 의지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유별나게 골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보조정보제공자 1)

“코털 좀 깎고 그러면 돼지 음식도 가려먹고 재네들 정이 안가요”(보조정보제공자 2)

“진짜 개종만 하면 사탄의 마수에서 빠져 나오기만 내 가족들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요.”(보조정보 제공자 3)

보조정보제공자들의 구술이 시사하듯 우리의 문화는 무슬림이라는 이질적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여 무(無)화시키려 했고 우리들의 지평으로 강제 이주시키려 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개별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압력에 무력했다. 휴일날 기도소에서 열리는 종교집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으나 경영주가 반강제적으로 특근을 시키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 경험(주요정보제공자 3, 4, 7)을 비롯하여 테러리스트(주요정보제공자 1, 6)나 위험인물(9, 8) 취급을 받기도 했다.

정보제공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때로는 절충적 입장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한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부활시켰다.

“한국사람들이 우리를 심하게 대하니까 초기에는 타협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심사숙고 했다. 우리는 돼지고기와 소주를 먹으려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우리를 찾아야 했다. 이슬람은 화려한 문명의 역사가 있다. 이슬람은 평화로 사람들을 평화롭게 했다.” (주요정보제공자 6의 구술을 연구자가 요약정리)

주요정보제공자들은 타협이나 어정쩡한 절충적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와의 문화경쟁을 벌였다고 분석된다. 한국인 보조정보제공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그들은 음식을 통한 정화의례와 금전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않는 이슬람 전통과 가난한 사람들을 고려하는 전통 등을 강변했다고 한다. 여성들에게 차도르나 히잡을 강요하고 간통한 여성을 돌로 때려죽이는 것들만 이슬람 전통으로 알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위와 같은 이슬람 전통은 충격이었다.

잠시 세속의 길로 진입했다가 다시 종교의 길로 들어선 정보제공자들은 내국인이나 비 무슬림국가 출신들과 같이 지내는 기숙사 생활보다는 자신들의 독립성과 전통을 고수할 수 있는 독거생활이나 무슬림 형제간의 공동생활을 선호하기도 한다.

“고향의 부모님은 내가 무슬림으로서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편지에는 늘 그런 말 뿐이었다. 부모·형제가 없기 때문에 잠시 무슬림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이제는 돌아왔다. 기도처에서 만나는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한다.”(주요정보제공자 2의 구술을 연구자가 재구성, 요약)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한 정보제공자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익명의 존재형식」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M읍으로 가는 버스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무슬림 전통복장을 한 무슬림 이주노동자에게 험구를 늘어놓았다. 아프카니스탄과 탈레반을 섞어 맹렬히 공격하고 있었다. 무슬림 이주노동자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말로 당당히 강변했다.

“우리 무슬림은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들은 전쟁을 수출하지 않는다. 한국은 베트남에도 아프카니스탄에도 군대를 보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K씨에 의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는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분의 존재, 익명의 존재 형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사회를 향해 말을 걸 수 있는 배경에는 위에서 분석·서술한 바와 같이 종교적 정체성의 부활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2) 초민족적 종교로의 재구성

무슬림들은 종교성보다는 민족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위에 종교가 더해져 무슬림의 엄격주의 전통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정보제공자들은 한국에서 민족과 국가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다.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모국은 한국인들에게 그저 가장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나라 등(주요정보제공자 1, 3, 6, 8, 9)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자신들이 공장주에게 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모국의 대사관은 침묵하고 있었다.(주요정보제공자 7)

“형제가 손가락 잘렸어. 사장은 돈 없다. 돈 없다. 나 죽여라고 했어요. 0000대사관에 갔지만 힘없어요. 전화해요, 전화만...”(주요정보제공자8)

주요정보제공자들에게 민족이나 국가는 울타리가 아니라 허울이었다. 한국에서 그들의 조국은 실체가 없었다. 그들이 지녔던 민족의 개념은 한국의 강한 민족주주의 앞에서 빛을 잃었다. 주요정보제공자들은 민족이나 국가를 대치하여 자신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했다. 또한 주요정보제공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철저하게 붕괴되는 경험을 했다.

“우리들은 기계 부품대우를 받아요. 고장나면 탄 사람으로 바꾸면 되요”(주요정보제공자 5)

“사장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게 정해져요. 사장이 화나면 우리는 무섭고 우리들은 화를 낼 수 없어요. 사장 오더에 움직이는 오토메이션이예요”(주요정보제공자 3)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는 코란이나 구약성서의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 땅의 이주 노동자, 특히 우리 문화와는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은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무슬림 이주민들은 언제가 교환가능하고 조작가능한 대상으로 존재했다.

주요정보제공자 1의 구술이 단적으로 시사하듯 주요정보제공자들은 “자신들의 몸과 영혼이 산산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 (주요정보제공자 1의 구술요약).

모든 것이 해체된 상황에서 자신이 “어느 민족에 속하고 무슨 언어를 쓰느냐 국적이 어디냐” (주요정보제공자 8의 구술요약)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주요정보제공자 2의 구술처럼 “오직 무슬림이라는 인식”하나만 남았다.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주요 정보제공자들은 종교라는 근원적 영역에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무슬림들은 종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거리도 있었다. 한국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니까 국가·민족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다. 우리 스스로 생존해야만 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슬림 뿐이었다. 말도 안통하고 종파가 달라도 서로 무슬림 형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 (주요정보제공자 4의 구술을 연구자가 요약, 정리)

“무슬림은 여러 종파가 있는데 어쩌면 한국에서도 새로운 종파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경우 이집트에서 콥트 기독교가 탄생했는데 한국에서도 무슬림들이, 시아파니 수니파니 그런 것 별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의미도 없어요. 무슬림으로서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다 보면 새로운 종파. 농담이지만 한국파가 생겨날지 누가 알겠어요” (보조정보제공자 6)

위의 구술처럼 주요정보제공자들은 각자 무슬림이라는 원초적이고 절절한 체험을 했고 이는 암묵적 합의를 거쳐 초국가·민족적 무슬림의 정체성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스크와 기도소에서의 회합은 주요정보제공자들에게 또 다른 신뢰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 H동의 모스크 사원과 K도 북부지역에 있는 기도소는 종파를 초월해 열려있다. 한국의 무슬림이 종파에 따라 모이고 회합장소를 마련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주요정보제공자들에 의하면 종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5. 논의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을 통해 “세속의 길에서 종교의 길로”, “초 민족적 종교로서의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문화주제를 도출했다.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무슬림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초기에는 잠시 종교생활을

있고 심지어는 코란도 지니고 있지 않다가 가족과의 재결합이나 모국에서의 종교 지도자 파송 그리고 강력한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의 감시와 독려 등이 원인이 되어 종교의 길로 들어서고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의 재무장을 통해 이민지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분석했다(Werbner, 2005; 안정국, 2008).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가족동반입국이나 가족초청이 허용된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나 대규모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환경 하에서 분석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정책상 가족동반 입국이나 초청이 불가능하고 인도네시아 출신 무슬림 이주민들이 3만명을 상회하는 구성원 수를 배경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도권 각처에 분산되어 있어 내부의 종교적 강제와 권위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연구 현장의 무슬림들은 한국사회에 팽배한 이슬람 혐오와 편견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부활시켰다고 사료된다. 이들 역시 초기에는 낯설은 이 땅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종교를 잠시 외면했다. 또한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지도 못했다. Berry의 분석틀에 의하면 전형적인 주변화이다. 이들이 문화적 주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데에는 문화적 자부심을 찾고 우리의 문화와 경쟁을 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무슬림 공동체는 종교성보다는 민족성이 강하고 민족과 언어에 따라 분화되어 간다(Lewis, 1994; Shaw, 1988; 안정국, 2008)고 보고했다. 하지만 무슬림 이주민들의 종교적 정체성은 민족이나 언어를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Modood, 1994)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연구현장의 무슬림들을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단일민족이나 국가 출신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무슬림 집단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인과 타 이주노동자들이 혼재한 연구 현장의 특색에서 기인한 결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정보제공자들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보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파편화되고 부품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극한의 정체성 붕괴 체험은 보다 근원적인 의지처를 찾게 만들었고 국가나 민족이라는 상상적 공동체보다는 종교라는 근원성에 의지하여 자신을 추스르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의 공유영역에서 이슬람은 초 민족적 종교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 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은 우리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내부적인 자기 강화와 재구성을 통해 점차 문화적으로 계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계도현상은 거주지의 계도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미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인 다문화 시대에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은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동시에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0. 『외국인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김민정·유명기·이혜정·정기산.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39-153.
- 김연수. 2007. “남편의 아내모국문화 이해 노력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 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래영. 199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 연구”. 『노동경제논집』 16(1): 42-62.
- 박석운.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 사회』 11(1): 38-46.
- 박성용. 2002. “질적 연구방법: 한국 질적 연구센터 질적 연구 워크샵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 박재규.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관련 요인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2007년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설동훈. 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제 16권: 72-86.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1): 35-51.
- 안정국. 2008. “한국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 『한국중동학회』 29(1): 67-91.
- 오성배. 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 32.
- 유명기.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1).
- 유명기. 2002. “간호학 방법론으로서의 문화기술지”. 『2006년 계명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 윤영주. 2001. “한국채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 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 폭력에 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회의자료집』.
- 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용숙·김영천. 2002.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옥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전략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0. “한국취업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 민족지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3): 26-43.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자녀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 활용연구』 13(1) : 75-87.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3(1): 101-136.
- 정희라. 2009. “루시디사건”. 박단 편.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 : 갈등과 통합사이에서』 서울:한성대출판부 191-223.
- 조명옥. 2003. “질적 간호연구 방법 : 문화기술지”. 『간호학 탐구』 12(1): 97-117.
- 조영달.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최돈길. 1995.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책』. 서울 : 한국개발원.
- 통계청. 2010. 『통계연보』, 대전 : 통계청.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함한희.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노동문제논집』 13(1): 82-103.
-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nal Review* 46 : 5-34.
- Berry, J. W. 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D C : APA.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 A : Greenwood Press.
- Crang, P., Dwyer, C., and Jackson, P. 2003. "Transnationalism and the spaces of commodity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438-456.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2nd ed)*. New York : McGraw-Hill.
- Gordon, T., Holland, J., and Labelma, E. 2001. *Ethnography research in educational setting*. In *Handbook of Ethnography*. P, Atkinson., A, coffey., J, Lofland., and L, Lofland(Eds.). London : Sage.
- Hallyday, F. 1999. *Islamic Britain : Religion, politics and Identity anlong British Muslem*, London : Hurst and 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3. World Migration Report 2003. Geneva, IOM.
- Jacobs, E. 1987. "Qualitative research tradition :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1): 1-50.
- Klienman, A. 1980. *Patient and Healers in the context of culture*.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lczycki, A., and Lobo, A. P. 2002. "Patterns,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of intermarriage among Arab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1): 202-210.
- Kymlicka, W., and Banting, K. 2006.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20: 57-72.
- Lewis, P. 1994. *Islamic Britain : Religion, politics and Identity among British Muslem*, London : Hurst and Co.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 Miller, W. L., and Crabtree, B. F. 1992. *Primary care research : A multimethod typology and qualitative road map*. In B. F. Crabtree and W. L. Miller(Eds.), *Do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 Sage.
- Modood, T. 1994. *Muslim Identity : Real or Imagined*. Birmingham : CSIC.
- Morse, J. M. 1996. *Qualitative health research : Ethnography*. London : Sage.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researsh : Challenge and rewards*. Beverly Hills, CA : Sage.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Roccas, S., Horenezyk, G., and Schwartz, S. 2000. "Acculturation discrepancies and well-being : The moderating role of conform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323-334.
- Rose, E. J. B., 1969. *Colour and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m, D. L., and Berry, W. J. 2006.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w, A. 1988. *A Pakistani Community in Britain*. Oxford : Blackwell.
- Spradley,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USA: Wadsworth group / Thomson learning. 박종흡 역. 2003. 문화기술지 면접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einmetz, M. 1991. *Doing qualitative research*. London : Falmer.
- Taylor, D. M. 1987. *Social psychological barriers to childhood bilingualism*. In M. Hornel, and S. Aronson(Eds.). *Childhood bilingualism : Aspects of linguistic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Newbury park, CA : Sage.
- Tesch, R. 1990. *Qualitative research : Analysis types and software tools*. Bristol, PA: Falmer.
- Tripper-Reimer, T., and Cohen, M. Z. 1990. *Qualitative approach to care : A critical review*. In knowledge about care and caring. S. J. Stevenson., and T. Tripper-Reimer(Eds.), Kansas : AAN.
- Urry, J. 2000. *Sociology Beyond Societies*. London : Routledge.
- Ward, C., Bochner, S., and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al shock*. East Sussex : Routledge.
- Werbner, P. 2005. *The translocation of culture : community cohesion and the force of multiculturalism in history*.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Oxford : Blackwell publishing Ltd.
- Zizek, S.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A New Ethnography Study on Immigrant Workers of Muslem Community

Kim, Young-Sook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interaction of muslim immigrant workers in korea. The author approached new ethnography study method. Ten of Muslem immigrant worker and 10 korea participated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 and non-participation observation The author analyzed the date according to Spradey(1979)'s 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 model.

As result 「From secular way to religious way」, 「Reconstruction of ultra ethnic religious」 were presented cultural theme.

Key words: New Ethnography study Muslem immigrant worker, from secular way to religious way, Reconstruction of ultra ethnic religious.

[논문 접수일 : 10. 12. 22, 심사일 : 10. 12. 31, 게재 확정일 : 11. 03. 07]